

지식인, 신(新)지식인, 참 지식인

홍 은 속 성결대기독교교육과 교수

우리는 새 천년의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새 시대를 맞기 위하여 나라마다 사회마다 제각기 바쁜 준비를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Y2K라고 불리는, 컴퓨터 관련 영역에서 이천년 인식오류를 수정하는 일인 것 같다. 그렇다면 새 시대를 맞기 위하여 대학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새 천년 대에 꿈꾸는 대학의 모양은 어떤 것이며, 새 시대에서의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굳이 새 천년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대학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대학종합평가도 그러하고, 각종 제도 개선의 추진도 그러하다. 이처럼 외견상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여기서 다룰 생각은 없다. 그러나 새 시대를 향한 길목에서, 대학 교육의 진부한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진리 탐구'라는 대학의 사명을 적어도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흔히 대학은 '상아탑'이라고 불린다. 야스퍼스는 「대학의 이념」이라는 그의 책에서 대학의 목적은 근원적인 지적 욕구를 실현하는 데 있으며, 따라서 대학은 학자와 학생들의 공동체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삼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진리 탐구를 통해 대학은 그 사회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그 시대의 가장 바람직한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대학은 한 사회

의 질적 수준을 가능히는 지성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대학 교육은 과연 이 사회의 지성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으며, 이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 우리의 진리 탐구 방식 및 그것을 전달하는 지식교육의 방식은 바람직한 인간과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하고 있는가? 혹은, 이러한 진리 탐구의 사명은 진부한 것이기 때문에 대학은 어떤 다른 사명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가? 요컨대 대학은 진리 탐구라는 전통적 사명을 포기하거나 수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계속해야 하는가? 계속할 경우, 진리 탐구의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21세기 인재상으로서 '신지식인'이라는 개념이 최근 등장하고 있다. 신지식인은 사물의 존재를 아는 '사물지(事物知)'와 사실적 명제를 아는 '사실지(事實知)'의 획득에 주력해 왔던 기존의 지식인과는 다른 종류의 지식인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지식인은 사물지, 사실지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방법지(方法知)'를 체득한 사람이다. 신지식인은 이러한 지식 외에도, 지식의 생성·저장·활용·공유 과정에 필요한 정신 자세, 습관, 기본 능력을 갖추고,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21세기형 인재라고 한다. 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분야

에서 지식 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조하고 자아를 실현해 가는 사람으로서, 21세기 지식기반 경제 시대에 걸맞은 삶의 양식을 가진 새로운 인간형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김효근 교수는 그의 『신지식인』이라는 책에서 정의한다. 성공한 지식인이 되려면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해야 하는데, 21세기 지식사회에서는 '지식'이 바로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때 필요한 지식은 기존의 사물지나 사실지가 아니라, 그것에 방법지를 추가한 것이라는 것이다.

교육에서 '방법지' 또는 '방법적 지식(knowing-how)'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은 1949년에 출판된 길버트 라일의 책 『마음의 개념』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주지주의 교육에서 명제적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에 반대하여 어떤 일을 지적으로 할 줄 아는 방법을 체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지식인에서 요구되는 '방법지'는 이러한 라일의 개념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분석 보완한 것이다. 이처럼 방법지를 강조하는 것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교육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인이 아닌 신지식인을 길러내는 경우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지식탐구가 우리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를 질문할 수 있다.

최 근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유전공학 분야에서 일련의 경이로운 혹은 경악할 만한 소식을 접하고 있다. 1997년 영국에서 복제 양 돌리가 태어났고, 1998년 우리 나라에서도 복제 송아지 영롱이가 태어났다. 인간 복제는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안 하고 있을 뿐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이다. 1999년 봄 이탈리아의 한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 '쥐 아기'가 태어났다. 무정자증 남성의 미성숙 정자를 쥐의 고환에서 추

출한 정소(精巢)에 넣어 배양. 인공 수정한 후 그 부인의 자궁에 이식해 아기를 출산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유전자가 변형된 새로운 인류가 나오고 말 것'이며 '몇 세기 뒤의 인간은 지금과 다른 외모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한다.

이러한 유전공학의 성과는 분명히 진리 탐구의 획기적인 개기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흔쾌한 기쁨만을 주지는 않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그것은 마치 어떤 물리학자가 진지한 탐구를 통하여 가공할 위력을 가진 핵 폭탄이나 여러 가지 인류 살상 무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것과 같은 심정일 것이다. 이처럼 진리 또는 지식을 탐구하는 일은 전통적으로는 가장 고상하고 가치로운 일로 여겨지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나 위험한 일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 탐구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면, 바람직한 진리 탐구 방식은 무엇이며 잘못된 진리 탐구 방식은 무엇인가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학이 진리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빈번히 듣는 비판은 그것이 상아탑의 순수학문만을 고집하며, 실제 생활에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식이 현실 세계에서 의미를 가지고 모종의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지식의 실용적 적용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형태의 왜곡된 교육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대학이 진리 탐구의 사명을 전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면, 대학에서 길러내는 지식인은 -그것이 '기존 지식인'이든지 '신지식인'이든지 간에- 먼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참지식인'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바른 지식이란 어떤 것인가? 대학에서는 어떤 종류의 지식을 가르쳐야 하며, 그러한 진리 탐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제 거론되기 시작한 '신지식인'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첫째로, 순수학문과 응용학문, 혹은 순수학문과 실용적 지식 및 기능을 가르치는 일 사이의 대립에 관해서 생각해 보자. 구소련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순수학문을 부르조아의 사치로 간주하여 죄악시하고 박해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즉각적인 실용성이 없다는 이유로 연구 지원이나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본다. 이것은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기초의학보다는 돈을 잘 버는 임상 쪽이 인기가 있고, 순수 물리학보다는 컴퓨터를 포함한 각종 공학이 더 인기가 있다.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IMF 체제 아래에서 대학생들은 취직을 위한 실용적인 공부에 치중하며, 결국 대학은 직업 준비학교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에서 순수학문을 주장하며 실용적 측면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응용 내지 실용 학문에만 치중하여 그것의 기초가 되는 순수학문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대학교육에서는 순수학문과 응용학문의 서로 다른 역할을 강조하며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실용성을 강조하는 것은 좋으나,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목적 상실한 기능인'을 양성하는 데 급급할 수 있다. 예컨대 과학을 가르칠 경우, 과학 활동의 핵심적인 목적은 잊어버리고 단지 지엽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데만 매달릴 수 있다. 혹은, 젊은 문필가들에게 글쓰는 기술을 상품화하는 방법, 그 글을 출판업자에게 파는 방법 등을 가르치면서, 출판의 역사, 자유언론제도의 취약성 등은 가르치지 않을 수 있다. 그들에게 명예훼손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글쓰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가르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우리는 지식과 기술에 통달한 탁월한 기능인은 양성하고 있지만, 자신이 그 활동을 왜 하는지 그리고

그 활동의 의미와 중요성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목적을 상실한 인간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신지식인을 양성하는 경우 지식의 목적, 사회적 의미, 가치, 중요성들보다는 다양한 기능과 능력을 강조하는, 기능인 양성에 치중하기 쉽다. 따라서 '목적 상실한 기능인' 양성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지식의 실용성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을 개인의 이기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악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소피스트들은 상대적 내지 실용적 진리관을 가지고, 교육에서 교묘하게 남을 이기는 이기적인 변론술을 가르치는 데 힘을 쏟았다. 우리는 흔히 소피스트들을 궤변론자라고 비난은 하고 있지만, 현실 세계에 오면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극단적인 경우, 지식을 악용하여 심지어 남을 해치기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 및 법률 지식을 이용하여 남에게 진 빚을 갚지 않고 빼돌려서 다른 가정은 파괴하고 자신은 그 빼돌린 돈으로 편안히 사는 철면피들을 볼 수 있다. 의학 범죄, 법률 범죄, 건축 관련 범죄 등 전문직종에서의 범죄는 고도의 관련 지식과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식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처럼 지식을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가? 지식의 성격 자체에는, 혹은 지식교육에는 이처럼 지식을 악용하는 것을 제어할 장치가 없는 것일까?

Parker Palmer는 『기독교교육 인식론』(To know as we are known: A spirituality of education)이라는 책에서 현대의 지식이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것을 경고하며, 파멸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인류에 보탬이 되는 지식은 어떠한 것인지를 탐색한다. 파머에 의하면, 우리는 과학의 발전을 인간 정신의 승리로서 자축해왔으나, 실제로는 인간이 자신의 통제력을 넘어서 지식의 힘에 사로잡혀 파멸과 죽음으로 이끌려 가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원폭 발사 실험이 어찌면 지구의 대기권을 파괴시켜 버

털지도 모르며 그 경우 지구가 사라질지 모른다고 논의하면서도, 과학자들은 그들의 통제력을 넘어선 지식의 힘에 사로잡혀 원폭 발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탐구한 지식이 도리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아이러니에 빠져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식의 발전과 위력을 기뻐하기보다는 그 지식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으며 또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식은 중립적인 '사실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서 가치 문제와 무관한 것으로 흔히 생각된다. 이에 대해 파머는 지식이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영혼 내부에 있는 열정의 장소에서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파머는 지식을 출발시키는 두 종류의 열정 내지 원천을 지적한다. 지식을 출발시키는 하나의 원천은 '호기심'과 '지배'이다. 호기심에서 생겨난 지식은 소위 순수하고 사변적인 지식으로서, 지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지식이다. 한편, 지배에서 나온 지식은 실용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파멸로 나아가는 경향이 높다. 이것은 지식을 일종의 노리개나 이기심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학교교육을 통해서 배운 지식은, 이러한 호기심 또는 지배의 욕구에서 나온 것으로서, 세상을 분해하고 조작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며, 그 결과 개인의 이익과 승리를 주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인간을 세계와 분리시키고 소외시키며, 공동체를 파괴하고 상처를 입히며, 결국 인간은 지식의 오만한 힘에 정복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인간을 짐승으로부터 구별짓는 지식이 인간의 세계를 훨씬 더 야수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식의 또 하나의 원천으로서 파머는 '연민'과 '사랑'이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의 지식에 대한 욕구는 인

류의 원초적인 유기적 공동체를 재창조하려는 열정, 즉 삶의 공동체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때 그 일이나 대상을 잘 알 수 있게 된다. 앎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인류의 삶과 공동체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잘 가꾸기 위해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지식은 인류 공동체의 상호 유기체적 본질을 깨닫게 하고, 분열과 소외를 극복하게 하며, 공동체의 연대를 엮어가는 끈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우리의 진리 탐구는 인류 공동체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 지식교육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화에 기초한 지식의 시대라고 한다.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지식의 오만한 힘에 더 이상 정복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식을 탐구하되 인류 공동의 선을 생각하며, 본래의 우주의 원리, 삶의 원리, 인간의 도리 등을 생각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또한 이웃과 환경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식을 탐구해야 한다. 우리는 진리 탐구를 통해 인류 공동체의 인간다운 삶을 회복해야 할 것이며, 그 점에서는 지식인이든지 신지식인이든지 예외가 없다. **144**

홍은숙

서울대 교육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경대학교 조교수로 재직중이며, 주요 논문으로 "세 가지 주지주의 교육", "교육적 앎의 성격: 인격적 지식론", "사회적 인간활동"의 개념과 교육의 의미" 외 다수를 발표하였다.